

# 나주시, ‘양성평등 솜품 영상 공모전’…31일까지 접수

‘1분의 시선, 평등의 시작’ 주제



2026년 나주시 양성평등 솜품 영상 공모전 포스터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2026년 나주시 양성평등 솜품 영상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1분의 시선, 평등의 시작’을 주제로 일상 속 양성평등을 소재로 한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나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60초 이내 솜품 영상을 제작한 뒤 네이버 폼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 ‘열린 시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는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두 번의 심사를 통해 8월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9월 양성평등 주간 행사 시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 규모는 ▲대상 1팀(300만 원) ▲최우수상 1팀(200만 원) ▲우수상 2팀(각 100만 원) ▲장려상 4팀(각 50만 원) ▲입선 10팀(각 10만 원) 등 총 18팀 작품을 선정하며 상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정책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시는 시민 누구나 성에 따른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일상에서 양성평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성백 기자

담양군,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화순군, 밤나무 해충 드론 방제 실시

담양군은 지난 11일 담빛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청소년 참여예산기구 제6차 정기회의와 연계해 ‘2026년 청소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

교육은 청소년들이 세금과 예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진행됐다.

참여 청소년들은 예산이 만들어지고 쓰이는 과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와 절차, 지역사회 문제를 사업으로 제안하는 방법 등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배웠다.

한편, 군은 현재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은 밤 생산량 증대와 고품질 밤 생산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밤나무 해충 방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복숭아명나방 등 밤나무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사평면과 백야면 일원 밤나무 집단산지 45.58ha를 대상으로 드론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숭아명나방은 밤 열매에 피해를 입혀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해충이다.

군은 해충 발생 시기에 맞춘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밤 생산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호경 기자

## 영광군, 매주 월요일 ‘건강한 영광’ 만든다

매주 월요일 ‘내 혈관 건강 살피기’로 군민 건강 증진



영광군 보건소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군민들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올해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월요일은 내 혈관 건강 살피기’ 사업이 상반기 동안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꾸준한 호응을 얻으며 지역 대표 건강증진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매주 월요일마다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여 혈관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군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생활 속 혈관 건강 루틴’을 정착시키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영광군은 22개 보건기관(보건소

1, 보건지소 8, 보건진료소 13)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에 따라 영양상담, 운동지도, 금연·절주 상담은 물론 치매예방, 방문건강관리, 재택의료 등 다양한 보건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상반기 동안 ▲2,500여 명의 군민이 혈압·혈당 검진 ▲맞춤형 건강관리 수첩 600건 배부되어 스스로 건강 변화를 기록하는 습관을 대중화시켰으며 ▲심도 있는 보건사업 연계 및 상담도 220건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톡톡히 증명해내고 있다.

영광군은 하반기에도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꾸준히 혈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지속하고,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군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김진기 기자

## 장성군, “탄소중립 실천하고 지역화폐 받으세요”

‘탄소모아 탄탄이(e)’ 운영… 걷기, 다화용기 사용 등 실천하면 혜택 제공

장성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탄소중립포인트제 플랫폼 ‘탄소모아 탄탄이’를 운영한다.

‘탄소모아 탄탄이’는 걷기, 대중교통 이용, 다화용기 사용, 환경운동 등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 사람에게 장려 점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점수를 쌓으면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장성군은 ‘탄소모아 탄탄이’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화폐도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이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장성군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확대해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 등 누구나 실천 가능한 활동을 중심으로 참여 기회를 넓



탄소모아 탄탄이(e) 포스터 /장성군 제공

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참여자는 앱을 통해 자신의 탄소중립 활동을 기록하고 실천에 따른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 지속적인 참여 동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탄소 감축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

다. 또한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이 개인의 생활 습관을 넘어 지역 내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성군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사업 내용을 알리고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재섭 기자

